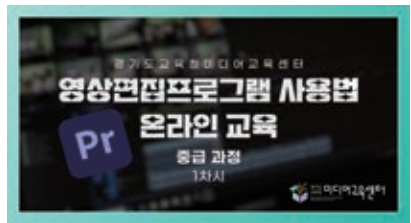


영상 편집프로그램 온라인 교육영상 제작·배포

지리적 한계 극복, 도 전역 학생의 미디어 교육격차 해소 기대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센터장 심상웅)가 4일 학생들의 영상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영상 편집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영상'을 제작·배포한다.

이번 교육 영상은 지역과 시간의 한계로 대면 교육 수강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자료 제공을 통해 영상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확장하는 효과가 있다.

영상은 교육호응도가 높은 '영상 편집프로그램 사용법 교육'의 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총 14편(초

급 6편, 중급 8편), 편당 최소 25분 이상으로 구성됐다.

초급 영상은 ▲영상 구성과 편집 개념 이해 ▲프로그램 활용 기초 영상 제작을 담고 있으며, 중급 영상은 ▲기초 사용법 복습 ▲난이도 있는 효과 적용 영상 제작 등이다.

영상은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유튜브 채널과 경기도교육청 온라인 학습플랫폼인 '경기온라인학교'에 탑재되어 학습자가 원하는 경로에서 편의에 따라 학습할 수 있다.

심상웅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은 “이번 온라인 교육 영상은 미디어교육센터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 더 많은 학생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반복 학습하며 미디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교육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9월부터 ‘반려식물 분갈이 서비스’ 재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월 5일부터 28일까지 주말을 활용해 ‘찾아가는 반려식물 분갈이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시민들이 건강하게 반려식물을 키울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분갈이를 돕고, 식물 관리요령을 안내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분갈이를 원하는 시민은 빈 화분과 식물을 가지고 아파트 내 마련된 공간을 방문하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사전 신청을 통해 휴먼시아 불푸레마을 등 총 8곳을 선정했으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흥구 공세동 시민농장에도 체험부스를 마련해,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일요일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분갈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앞서 4월에는 아파트 8곳에서 관엽식물, 선인장, 다육식물 등 다양한 반려식물에 대한 분갈이 서비스를 진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 원예 문화 확산을 위해 분갈이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가정에서 하기 어려운 분갈이를 돕고 전문가의 관리 팁도 배울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성남물빛정원 뮤직홀’ 개관 기념 음악회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건물이 음악이 흐르는 문화 예술·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해 시민을 맞는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9월 7일과 8일 오후 7시 성남물빛정원 뮤직홀 개관(9.5) 기념 음악회를 연다.

시는 세계적인 지휘자이자 성남시립예술단 예술총감독인 금년새 씨를 뮤직홀 예술감독으로 위촉해 음악회 지휘와 진행을 맡도록 했다.

양일간 연주곡은 스그리그 모음곡 ‘올베르그의 시대에서’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 △쾨르스의 ‘팔라디오’ △갈리아노의 ‘골로드를 위한 탱고’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 △레스피기의 고풍적 아리아와 춤곡 모음곡 3번 ‘파사칼리아’ 등이다.

골든 챔버 오케스트라가 출연해 바이올리니스트 윤해원, 반도네퇴니스트(아코디언) 김종완, 피아니스트 노예진 등 촉망받는 젊은 음악가들의 환상적인 하모니를 감상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뮤직홀(150석 규모) 개관 음악회를 시작으로 △9월 11일(출연진. 리수스 파르렛) △9월 16일(서울 비르투오지) △9월 21일(탱고 퀸베티 푸에고) △9월 27일(박해림·정예찬 피아노 듀오) 등 매주 1회 이상 스트링 오케스트라(15명 내외), 실내악 앙상블, 독주회 등의 공연을 연다.

관람 신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통합예약→신청접수)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매회 주점을 통해 관람이 확정된 이들이 뮤직홀 음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성남물빛정원 뮤직홀은 옛 하수처리장 유입펌프동을 리모델링한 건물이다.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881㎡ 규모이며, 카페, 악기 보관실, 연습실 등이 있는 문화공간으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현재 뮤직홀이 들어선 옛 하수처리장은 한국도지주택공사(LH)가 1994년 착공해 1997년 준공한 시설이다. 시험 가동 중 인근 주민 반대로 운영이 중단되면서 28년간 방치됐다.

군포시, 경희대 대학원과 산학협력 협약

군포산업진흥원(원장 유병직)은 9월 2일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원장 정원익)과 관내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제와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군포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전문인력 양성제와 연구 및 학술 교류 등 다음과 같은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포지역 중소기업들은 체계적인 전문인력 교육 기회를 확보하고,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은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군포지역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 임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전문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석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장은 “우리 대학원은 MBA, ESG경영, 반도체융합 그리고 AI기술경영 교육과 같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며 “군포시 기업들의 재직자들이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군포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뜻깊은 협약이라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유병직 군포산업진흥원장은 “군포시 기업들이 직면한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확보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인재양성과 현장과 학문의 긴밀한 연결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송민수 기자

경기관광공사, 中 무비자 중국단체관광 유치 박차

중국 쓰촨성 청두시등산운동협회, 청두해외유한책임공사 MOU 체결

중국단체 무비자 시행 및 국경절 황금연휴 대비 단체관광 유치 확대 기반 마련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9월말 시행 예정인 중국인 방한 단체여행 한시적 무비자 제도, 10월 중국 국경절 황금연휴에 맞춰 중국 서부내륙지역 현지 유관기관 및 업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국 단체관광객의 도내 유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웅, 이하 공사)는 3일, 쓰촨성 청두(四川省 成都)에서 청두시등산운동협회(成都市登山运动协会) 및 청두해외여유유한책임공사(成都海外旅游有限责任公司)와 각각 단체관광 유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청두시등산운동협회는 126개 기관·기업·단체와 개인회원 110여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국내외 다양한 트래킹 행사를 개최한다. 또 청두해외여유유한책임공사는 쓰촨성 주요 여행사로 매년 한국, 일본, 중동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체관광객 송출을 해오고 있다.

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시적 무비자 제도를 적극 활용 ▲등산운동협회 회원 및 동반가족을 대상 경기도 트래킹 웰니스 여행유치, ▲주요 여행선수시 중국 서부내륙 단체관광객 유치 공동마케팅, ▲경기도의 DMZ, 평화누리길, 바다 등 중국 내륙지역에 선호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신규 상품개발, ▲양국 지속 가능 관광산업 발전과 글로벌 트렌드 선도를 위한 공동 노력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추



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국내 경기관광홍보사무소(칭다오, 상하이)를 통한 경기관광 온·오프라인 홍보 세일즈 강화, ▲샤오홍슈(小红书) 등 중국 인기 SNS 활용 중국소비자 대상 경기관광 홍보이벤트 진행, ▲OTA(온라인 여행플랫폼) 협업 경기도 단체상품 홍보마케팅 확대, ▲여행업계 상품개발 및 홍보관촉 지원 등을 추진, 무비자 시행에 따른 중국 단체객 유치 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조원웅 사장은 “한시적 무비자입국 시행 발표, APEC 개최,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 및 확산 등 한중 관광교류 확대 요인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중국 서부내륙지역 협업 구축과 다양한 마케팅, 그리고 10월 국경절 황금연휴를 계기로 인바운드 1억 중국 시장 유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버스정보시스템(BIS) 어플리케이션(앱)인 ‘경기버스정보’가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 9월 5일부터 새롭게 선을 보인다.

이번 앱 개선은 기존 복잡했던 메뉴 구조를 간소화하고, 주요 기능을 전면에 배치해 누구나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던 메뉴들을 통합하거나 접근 경로를 단축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메인 화면에 고정 배치하거나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해 사용자가 한눈에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게 직관성을 높였다. 주변 정류소, 노선 검색, 실시간 버스 위치 확인 등 다양한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이용한다.

송민수 기자

남양주시, 산하기관과의 협력·소통을 위한 ‘티타임’ 개최

시정연구원·문화재단 출범에 따른 유기적 협조 기반 마련



주광덕 시장은 “이번 회의는 시와 산하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첫 자리로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업무 추진 시 산하기관과 시 담당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이천시, 19일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 개막



있다.

축제 둘째 날인 20일에는 장호원

체육공원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이천시편' 본선이 열린다.

18일 예심을 통과한 참가자들이 무대에 오르며, 장민호, 윤태화 등 초대 가수들이 출연해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

시민 편의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남부연수원 주차장에 임시 주차장이 운영되고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또 호범면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에서는 2일간 복숭아 직판 행사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천시 햇사레 복숭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가족과 함께 이천의 가을을 만끽해 달라”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수원시, ‘시민에게 찾아

가는 직거래 장터’ 운영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9월부터 11월까지 시청과 장안구청, 한국마사회 수원지점에서 ‘시민에게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수원로컬푸드직매장에 입점한 신선한 농산물과 제후푸드, 화훼 등을 판매한다. 시민들은 제철 농산물과 자매도시 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11월까지 ▲수원시청 별관 청사(매월 첫째 주 수요일) ▲장안구청 구민회관(매월 둘째 주 수요일) ▲한국마사회 수원지점(9월 25일 목요일)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

수원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는 농업인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고액체납자 압류품

온라인 공매서 96% 낙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경기도 주관으로 진행된 온라인 동산 합동 공매에서 96%에 달하는 높은 낙찰률과 함께 약 5천 600만 원의 낙찰대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매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거주지 수색을 통해 확보한 귀금속·명품 가방·시계·전자제품 등 고가 동산을 공개 매각해 체납세금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총 83점을 출품해 80점이 낙찰됐으며, 확보된 낙찰대금은 대부분 지방세 체납액 충당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총 522점 중 420점이 낙찰돼 평균 낙찰률은 80.5%를 기록했으며, 낙찰대금은 총 3억 200만 원에 달한다.

한편, 이번 공매에서 유찰되었거나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물품, 그리고 추가 압류된 물품은 오는 11월 중 온라인 공매를 통해 다시 매각될 예정이다.

안양시, ‘복지위기가구 발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교육

안양시(시장 최대호)에서는 지난 1~2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인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일상생활 중 복지위기가구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제보하는 한편, 고위험 가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무보수·명예직의 지역주민이다.

안양시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 자원봉사자, 생활임종 종사자, 기타 지역주민 등 총 1,511명이 활동 중이다.

이번 교육에서 간호숙 연성대학교 교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및 발굴·연계 방법 등 효과적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어, 박희숙 안양시 통합사례관리사가 위기가구 발굴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사례관리를 통해 위기가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광주시, 직리천 보행자

데크도로 보행환경 조성

광주시는 보도가 끊겨 보행 불편이 이어지던 직리천 구간에 ‘보행자 데크도로 설치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차량 통행이 많은 직리천 인근 도로에 연장 460m, 폭 1.8m 규모의 인도교를 설치한 것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난간 등 안전시설도 함께 마련했다.

데크도로 설치로 인근 주민들의 보행 안전이 강화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변 산책로와의 연계성이 높아져 시민들의 여가·휴식 공간으로 활용도도 확대될 전망이다.

방재환 시장은 “직리천 데크도로는 불편을 겪던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로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보행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